

## 치 사

온 대지는 물론 우리의 삶 곳곳에도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위수여식 또한 종단과 우리 사회에 희망의 봄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축하와 더불어 격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울러 항상 승가교육이 종단의 백년대계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학교발전에 헌신하시는 총장 원행스님과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문 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원력이 함께하는 중앙승가대학교는 시대의 요청을 진중하게 담아내면서 한결같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가와 종단이 추구하는 목표 지점이 우리 사회와 인류가 희망하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진의 연속이라 할 것입니다.

수행자로서의 책무와 여기서 오는 자긍심은 결국 일생을 학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더욱 빛나게 하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는 곧 개인의 성취를 넘어 종단의 결실, 그리고 사회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항상 변화의 시작은 미래의 발전을 위하는 큰 바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앞서 걸어간 스님들, 그리고 전 종도의 깊은 관심은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는 소중한 발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변화의 시작에 있는 것이며, 여러분의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의 결

실로 회향하게 될 것입니다.

유독 올해는 희망과 환희로 맞이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소망이 커지는 한해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국민과 사회의 불안과 아픔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지혜로움과 너그러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앞으로의 한걸음 한걸음이 학인으로 내딛었던 첫 마음과 같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제스님의 가르침처럼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곧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사회의 아픔과 국민의 불안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정진해 나간다면, 올해는 다사다난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희망과 행복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백년대계, 그리고 가장 근간이 되는 인재육성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의 실천으로 가늠하게 될 것이며, 또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모범이며 종교적 수승함을 보여주는 종단의 자긍심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뜻 깊은 오늘을 축하해주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시간 각고의 노력이 함께하는 학위수여를 거듭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성취가 사회 곳곳의 웃음과 행복으로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2월 24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